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2018년 하반기 이후, 저성장 재현 우려

목 차

■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2018년 하반기 이후, 저성장 재현 우려

Executive Summary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
2. 대외 경제 여건	9
3.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13
4. 시사점	19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흥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외 5명

Executive Summary

□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2018년 하반기 이후, 저성장 재현 우려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최근 경기 국면은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문 중 소비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경기 호조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국제교역의 증가가 주된 동력이나 경기 회복이 아직은 일부 산업에 국한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내수는 소비 부문이 점진적이거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투자 부문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 2018년 수정 경제 전망의 배경

(수출 회복세 강화) 견고한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경기 회복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17년 10월 IMF가 전망한 2018년 세계경제 전망치는 3.7%로 지난 7월 전망치 3.6%보다 1%p상향 조정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수출 경기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문제 해빙기) 지난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를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사드 문제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다소 완화되어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 상존) 가계부채 구조 조정애 따른 소비 위축, 3고(高금리, 高원高, 高유가), 건설투자 침체 등 국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2018년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경기 호조세 지속과 제한적인 내수 회복 등으로 2018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7년 9월)의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 그러나 상존해 있는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하면 2017년 3.1%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민간 소비)** 2018년 민간소비는 2017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 심리 개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은 민간 소비 개선에 긍정적이거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 효과 축소 등 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한다. **(건설투자)** 건설투자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건축 기성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건축 수주는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평창 올림픽 등 기존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SOC 예산 감축 등에 따른 신규 사업 위축으로 토목 부문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 개선 및 수출 회복세로 설비 투자 확대는 지속되겠지만, 기저 효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거래)** 2018년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6.2% 성장할 것이다.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소비 회복 등 영향으로 7.7% 늘어날 것이다. 다만 2017년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과 수입의 증가폭은 줄어들

것이다. 한편 무역수지는 약 960억 달러, 경상수지 약 75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물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증가 및 소비 개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요와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기준 금리 인상 및 원화 강세 기조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물가 상승폭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고용)** 정부의 일자리 추진 정책 등으로 고용 시장이 개선될 전망이나 2018년 경제 성장률 하락, 건설 경기 침체 등이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업률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 2018년 국내 경제 수정 전망 >

구 분	2016년 연간	2017년			2018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2.8	2.8	3.5	3.1	3.0	2.6	2.8
민간소비 (%)	2.5	2.1	2.4	2.3	2.6	2.4	2.5
건설투자 (%)	10.7	9.4	4.7	6.8	1.6	0.4	1.0
설비투자 (%)	△2.3	15.9	11.9	13.8	5.0	4.2	4.6
수출증가율 (%)	△5.9	15.7	15.8	15.7	6.5	6.0	6.2
소비자물가 (%)	1.0	2.0	2.0	2.0	2.0	1.8	1.9
실업률 (%)	3.7	4.1	3.5	3.8	4.0	3.6	3.8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시사점) 2018년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보다 낮은 2.8%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 경기 회복세로 인한 수출 경기 호조 지속 등을 고려한다면 2018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수 부문에서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제한적인 보완, 하방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2017년 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대응 방안)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경기 확장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성장 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정확대와 긴축의 상반된 정책 기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가계부채 구조조정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안정장치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의 시기 조절 등을 통해 건설 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 수출의 회복세를 이어가야 한다. 여섯째,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일곱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경기상승 국면 진입 속 경기상승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상존)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높아졌으나, 4분기에 들어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어 현재의 경기상승 기간이 예상외로 짧을 가능성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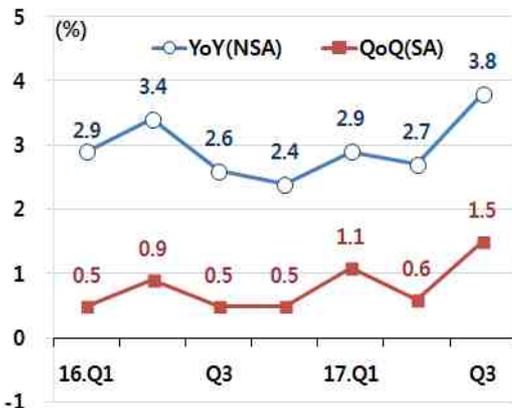
-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5%(전년동기대비 3.8%)로 2분기의 0.6%보다 0.9%p 증가하는 '깜짝 성장'을 시현

- 부문별로 보면 3분기 수출증가율이 전기대비 6.1%를 기록하였으며, 정부소비가 1분기 0.5%에서 3분기에 2.3%로 상승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 반면 3분기 민간소비증가율은 0.8%, 건설투자증가율 1.5% 및 설비투자증가율도 0.7%에 그쳐 내수 부문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낮은 회복 속도 시현

- 선행지수가 경기 하강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동행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번 경기 회복 국면이 단기간 내 종결될 가능성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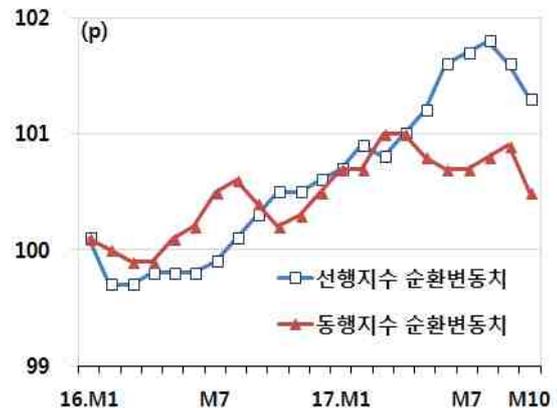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10월에 들어 급락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7년 7월 100.7p, 8월 100.8p, 9월 100.9p, 10월 100.5p
-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하락세로 반전됨에 따라 향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경기하강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을 시사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7년 7월 101.7p, 8월 101.8p, 9월 101.6p, 10월 101.3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 통계청.

○ (소비 회복세 지속) 소비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재 수입액 등의 소비 선행지표들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은 부정적

- 10월 소비 지표가 급락하기는 하였으나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소비 회복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10월중 내구재 소비는 연휴효과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7.7월 3.6%, 8월 0.9%, 9월 8.4%, 10월 Δ 0.2%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7.7월 11.7%, 8월 6.1%, 9월 20.8%, 10월 Δ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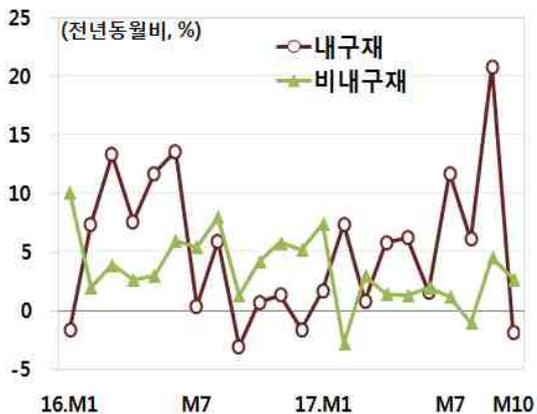
- 다만 최근에 들어 소비재 수입액과 수입물량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판단

· 4분기에 들어 소비재 수입액 및 수입물량이 감소하는 모습

※ 소비재수입액 증가율(YoY): '17.7월 12.4%, 8월 2.5%, 9월 12.6%, 10월 Δ 1.4%

※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율(YoY): '17.7월 Δ 1.0%, 8월 11.7%, 9월 9.3%, 10월 Δ 15.9%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소비재 수입액 및 수입물량 증가율>



자료 : 관세청.
주 : 6개월 이동평균.

○ (설비투자 회복 강도 약화) 2017년에 들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4분기에 들어가면서 부진한 모습을 시현

- 2017년에 들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4분기에 들어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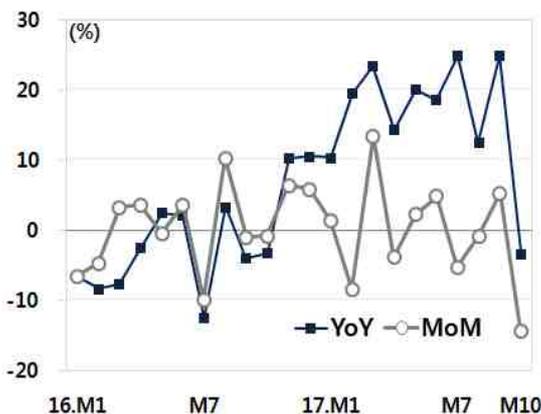
- 10월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Delta 3.4\%$ 로 감소세로 전환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7.7월 24.9%, 8월 12.4%, 9월 24.9%, 10월 $\Delta 3.4\%$

- 전기대비 기준으로도 9월 5.3%에서 10월에 $\Delta 14.4\%$ 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MoM): '17.7월 $\Delta 5.3\%$, 8월 $\Delta 0.8\%$, 9월 5.3%, 10월 $\Delta 14.4\%$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상승 추세가 약화되는 모습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17년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10월에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10월에 들어 감소세로 전환 (9월 전년동월대비 47.2%에서 10월에 $\Delta 2.1\%$ 로 하락)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 (건설투자 침체 국면 진입 확인) 민간과 공공 모두 경기 침체 국면 진입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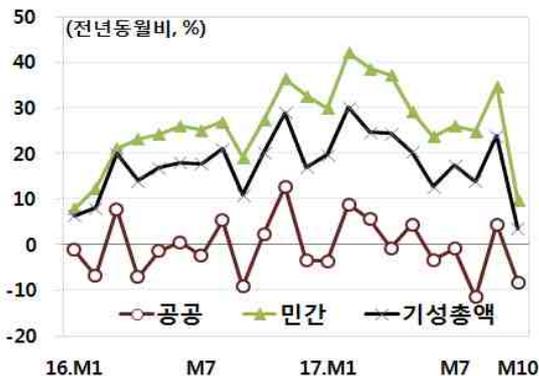
- 건설투자(기성)는 민간 부문이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공공 부문은 여전히 부진

- 10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5%로 9월(23.9%)에서 급락
 - ※ 건설기성 증가율(YoY): '17.7월 17.4%, 8월 13.9%, 9월 23.9%, 10월 3.5%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이 10월중 9.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공공 부문 증가율은 △8.3%의 감소세를 기록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17.7월 △0.9%, 8월 △11.5%, 9월 4.4%, 10월 △8.3%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17.7월 26.0%, 8월 24.9%, 9월 34.8%, 10월 9.7%

-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수주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면서 향후 건설경기의 급랭 가능성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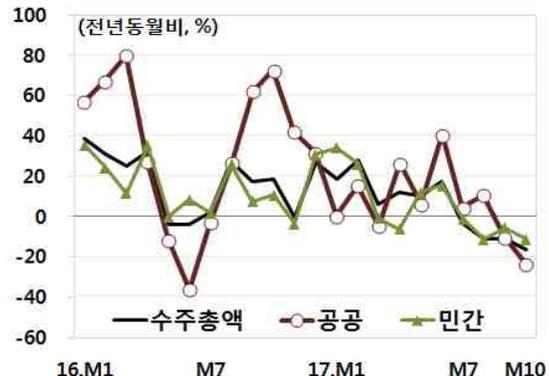
- 건설수주액 증가율(선행지표)은 10월중 △45.7%를 기록
 - ※ 건설수주 증가율(YoY): '17.7월 △29.5%, 8월 △4.7%, 9월 1.0%, 10월 △45.7%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17.7월 △31.4%, 8월 △11.0%, 9월 11.0%, 10월 △70.0%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17.7월 △21.9%, 8월 2.5%, 9월 2.6%, 10월 △38.8%

<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주 : 3개월 이동평균.

○ (수출 경기 호조) 수출 부문은 수요 부문중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향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율 자체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11월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10월 이후 한 자릿수 증가율로 둔화

·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개선과 반도체 시장의 호황 등으로 '16년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중

※ 수출액 증가율: '17.7월 19.5%, 8월 17.4%, 9월 34.9%, 10월 7.1%, 11월 9.6%

·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고 여전히 단가 요인의 영향력이 높다는 점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 수출물량 증가율: '17.7월 Δ 1.9%, 8월 7.8%, 9월 16.9%, 10월 Δ 9.0%, 11월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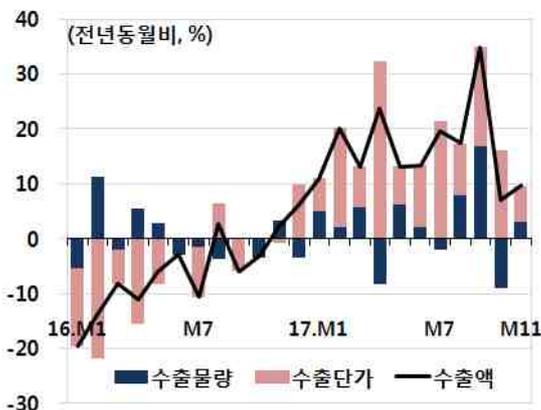
-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4대 주력 수출 시장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

· 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 중국 수출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낮았으나 8월 이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호조를 지속중

※ 대중 수출액 증가율: '17.7월 6.5%, 8월 15.5%, 9월 23.4%, 10월 13.5%, 11월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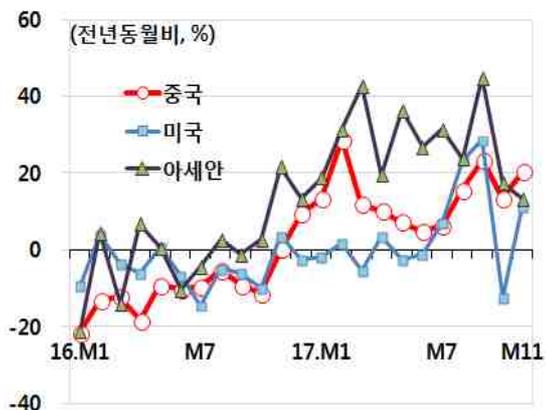
· 한편 11월중 대 아세안 수출증가율은 13.4%, 대 EU 수출증가율 2.7%, 대 미국 수출증가율 11.4% 등 다른 주력 시장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

< 월별 수출 증가율 >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물가 안정 속 향후 비용상승 인플레이 우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 수준으로 회귀하였으나 여전히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유지되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는 존재

- 3분기중 일시적인 요인들로 높아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분기에 들어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오는 모습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10월과 11월 모두 1%대를 기록
 -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7.7월 2.2%, 8월 2.6%, 9월 2.1%, 10월 1.8%, 11월 1.3%
- 11월 생활물가)상승률은 1.3%로 2016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안정
 - ※ 생활물가상승률(YoY): '17.7월 3.1%, 8월 3.7%, 9월 2.9%, 10월 2.0%, 11월 1.3%

- 10월중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비록 9월보다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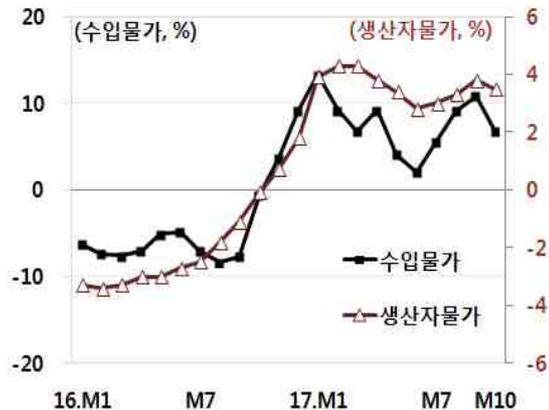
- 10월 수입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6.8%로 9월의 10.8%보다 하락
 - ※ 수입물가 상승률(YoY): '17.7월 5.5%, 8월 9.1%, 9월 10.8%, 10월 6.8%
- 10월 생산자물가상승률은 3.5%로 9월의 3.8%보다 하락
 -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17.7월 3.0%, 8월 3.3%, 9월 3.8%, 10월 3.5%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자료 : 통계청.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 한국은행.

1) 소비자물가 품목중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 미흡) 외형상 전체 실업률은 하락하였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전체 고용창출력도 축소되는 모습

- 10월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16년 10월 3.4%)보다 하락하였으나, 청년실업률과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모두 상승²⁾

· 2017년 10월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의 3.4%보다 개선되었으나, 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전년동월 수준(8.5%)보다 상승

※ 청년체감실업률: '15.10월 20.9%, '16.10월 21.1%, '17.10월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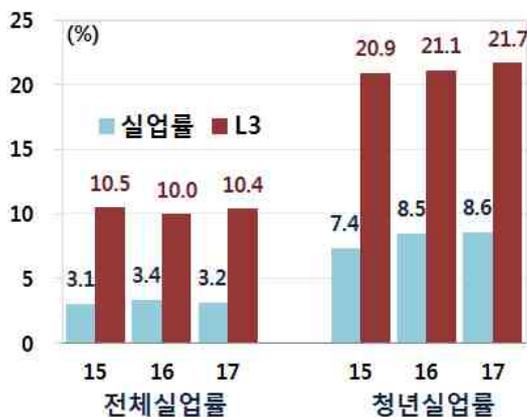
- 10월중 서비스업 신규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여 전체 취업자수는 30만 명 선에 미달

· 10월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은 27만 9,000명으로 9월의 31만 4,000명보다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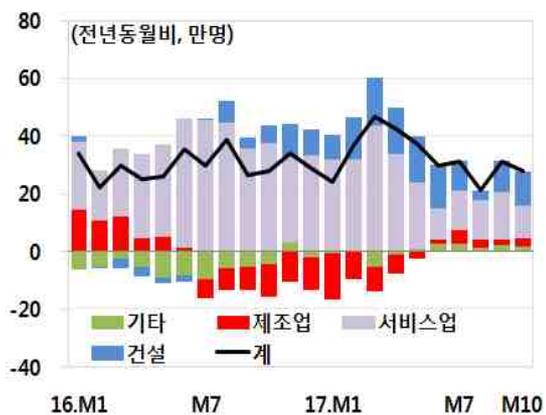
※ 취업자 증감(YoY): '17.7월 31.3만 명, 8월 21.2만 명, 9월 31.4만 명, 10월 27.9만 명

· 10월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은 2.8만 명, 서비스업 11.3만 명, 건설업은 11.8만 명

< 실업률 및 체감실업률(10월 기준) >



<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



자료 : 통계청.
주 : L3는 고용보조지표3를 의미.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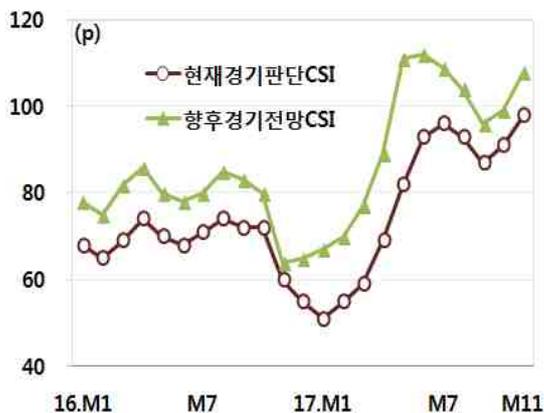
2) 고용보조지표3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경제심리의 낙관적 시각 확대) 4분기에 들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문의 낙관적 시각이 두드러지는 모습

- 가계가 체감하는 현 경기 상황과 미래 전망에 모두 낙관적 시각이 확대
 - 가계의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11월 현재 98p로 9월 이후 상승 추세 지속
 - ※ 현재경기판단CSI: '17.8월 93p, 9월 87p, 10월 91p, 11월 98p
 - 한편 향후경기전망CSI도 9월 이후 상승하여 11월에는 기준치 100p를 상회
 - ※ 향후경기전망CSI: '17.8월 104p, 9월 96p, 10월 99p, 11월 10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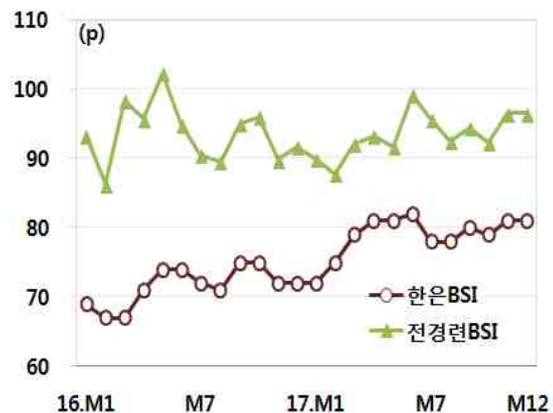
- 기업의 경제심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개선되는 추세로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³⁾
 - 전경련 BSI(전망)는 여전히 기준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나 4분기중 상승 추세는 유지
 - ※ 전경련 BSI: '17.8월 92.4p, 9월 94.4p, 10월 92.3p, 11월 96.5p, 12월 96.5p
 - 한은 BSI(업황전망)는 장기 평균치인 80p⁴⁾ 내외에서 횡보하는 모습
 - ※ 한은 BSI: '17.8월 78p, 9월 80p, 10월 79p, 11월 81p, 12월 81p

< 소비자심리지수(CCSI) >



자료 :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3) 전경련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BSI(3,313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4) 2003년 2월 이후 현재까지 한은 BSI(업황전망)은 기준치 100p를 넘는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기간중 장기 평균치는 80p임. 따라서 80p 수준 정도면 보통 수준의 경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판단됨.

2. 대외 경제 여건

① 세계 경기 및 교역 : 완만한 회복세

○ (현황) 2017년에 선진국 및 신흥국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 세계 교역은 증가세

- 선진국 경기 : 미국은 2/4, 3/4분기에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유로지역, 일본 등의 선진국 경기 또한 완만히 회복
- 신흥국 경기 : 중국, 인도는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은 2017년부터 회복세가 강화
- 세계 교역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세계 교역 확대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세계 경제성장률	3.4	-	-	-	-	3.2	-	-	-
선진국	2.2	-	-	-	-	1.7	-	-	-
미 국	2.6	0.6	2.2	2.8	1.8	1.6	1.2	3.1	3.0
유로지역	2.0	0.5	0.3	0.5	0.6	1.8	0.6	0.7	0.6
일 본	1.1	0.5	0.5	0.2	0.4	1.0	0.3	0.6	0.3
신흥개도국	4.3	-	-	-	-	4.3	-	-	-
중 국	6.9	6.7	6.7	6.7	6.8	6.7	6.9	6.9	6.8
인 도	8.0	9.1	7.9	7.5	7.0	7.1	6.1	5.7	6.3
브 라 질	△3.8	△5.2	△3.4	△2.7	△2.5	△3.6	0.0	0.4	1.4
러 시 아	△2.8	△0.4	△0.5	△0.4	0.3	△0.2	0.5	2.5	1.8
ASEAN-5	4.9	-	-	-	-	4.9	-	-	-
세계 교역증가율	2.8	-	-	-	-	2.4	-	-	-

자료1) 연간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년 10월).

2) 분기 (미국: 상무부 ; 일본: 내각부 ; 유로존: Eurostat ; 중국: 국가통계국 ; 인도: 인도중앙통계기구 ; 브라질: IBGE ; 러시아: 연방 주 통계청).

주1) 분기성장률 (미국: 전기대비연율 ; 일본: 전기대비 ; 유로존: 전기대비 ; 중국: 전년동기대비 ; 인도: 전년동기대비 ; 브라질: 전년동기대비 ; 러시아: 전년동기대비).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3) 세계 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량 기준.

○ (전망) 2018년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 둔화, 신흥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세계 교역은 증가세 둔화 전망

- 선진국 경기 :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가 제약되면서 선진국 경기 회복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미국은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등 하방 리스크 상존
 - 유로존의 소비 회복은 지속되나 브렉시트 협상, 남유럽 은행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유로존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일본은 임금상승 및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신흥국 경기 : 중국은 완만한 둔화, 인도는 성장세 확대, 브라질은 경기 침체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등 신흥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중국은 부동산 재고, 금융리스크 등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 부양보다 구조개혁 및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 성장세는 둔화 전망
- 세계 교역 : 선진국 경제의 회복 둔화와 브렉시트 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하방 리스크로 세계 교역 증가율은 소폭 둔화

<IMF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

	2017년(E)			2018년(E)		
	2017. 10월 전망	2017. 7월 전망	2017. 4월 전망	2017. 10월 전망	2017. 7월 전망	2017. 4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3.6	3.5	3.6	3.7	3.6	3.6
선진국	2.2	2.0	2.0	2.0	1.9	2.0
미 국	2.2	2.1	2.3	2.3	2.1	2.5
유로지역	2.1	1.9	1.7	1.9	1.7	1.6
일 본	1.5	1.3	1.2	0.7	0.6	0.6
신흥개도국	4.6	4.6	4.5	4.9	4.8	4.8
중 국	6.8	6.7	6.6	6.5	6.4	6.2
인 도	6.7	7.2	7.2	7.4	7.7	7.7
브 라 질	0.7	0.3	0.2	1.5	1.3	1.7
러 시 아	1.8	1.4	1.4	1.6	1.4	1.4
ASEAN-5	5.2	5.1	5.0	5.2	5.2	5.2
세계 교역증가율	4.2	4.0	3.8	4.0	3.9	3.9

자료 : IMF.

② 국제 유가 : 소폭 상승 전망

○ (현황) 2017년 국제 유가는 상승세

- 국제 유가는 상반기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최근 OPEC 감산 연장으로 빠르게 상승
 - WTI 가격은 1월 52.5달러에서 6월 45.2달러로 하락했으나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10월 51.6달러로 상승
 - OPEC 총회(11.30)에서의 감산 연장 합의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

○ (전망) 2018년 국제 유가는 석유 수요 증가와 OPEC 감산 연장 합의로 소폭 상승할 전망

- 2018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와 OPEC 감산 합의에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원유 및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소폭 상승할 전망
 -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석유 수요의 증가와 OPEC 감산 연장 합의는 국제 유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미국의 원유 및 셰일오일 생산 증가로 국제유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WTI 유가 추이 및 전망 >

(달러/배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E)	하반(E)	연간(E)
WTI	48.8	43.5	50.0	50.5	50.2	49.2	52.7	51.0

자료 : 한국석유공사, EIA(2017.11, STEO).

주1) 2017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실적치.

2) 2017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치.

③ 주요국 환율 : 달러화 약보합세, 유로화 강세 전망

○ (현황) 2017년 중 달러화는 약세, 유로화는 강세, 엔화는 강보합세 흐름

- 달러화 :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달러화는 연초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상 및 연준자산 축소 발표 등으로 9월부터 달러 가치가 반등
 - 달러화 지수(주요국 통화대비)는 2017년 1월 101.2p에서 9월 92.3으로 하락했으나 11월 94.0p로 상승
- 기타 주요국 통화 : ECB 테이퍼링 전망, 유로존 경기 회복 등으로 유로화는 강세, 미국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는 강보합
 -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2017년 1월 0.942유로에서 11월 0.853유로로 하락
 -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2017년 1월 115.1엔에서 11월 112.9엔으로 하락

○ (전망) 2018년에 달러화는 약보합세, 유로화는 강세, 엔화는 약보합, 위안화는 강보합세 전망

- 달러화 : 트럼프 정책 추진력 부진 지속, 세계 개혁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전망 등으로 달러화 가치는 약보합세 전망
- 유로화 : 유로존 경기 회복 여부, ECB 테이퍼링 속도 조절 등에 따라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엔화 : 일본의 경기 부진 지속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약보합세 전망
- 위안화 : 중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나 중국 정부의 구조 개혁 및 금융리스크 통제로 구조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강보합세 전망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환율 전망>

구분	유로/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2017년	6개월후	12개월후	2017년	6개월후	12개월후	2017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0.89	0.83	0.81	112.1	113.7	110.3	6.77	6.64	6.59
최고	-	0.87	0.85	-	120.0	125.0	-	6.70	6.75
최저	-	0.77	0.74	-	109.0	107.0	-	6.60	6.45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주1) 2017년은 1월 2일 ~ 11월 30일간 평균.

2) 6개월후 및 12개월후는 2017년 11월 전망치 기준.

3.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수정 전망 배경 : 지난 9월 2018년 경제 전망 발표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로 2018년 경제 전망을 수정함

- (수출 회복세 강화) 견고한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경기 호조는 지속될 전망

· 2017년 10월 IMF의 2018년 세계 경제 전망치는 3.7%로 7월 전망치 3.6%보다 1%p 상향 조정됨

- (사드 문제 해빙기) 지난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를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사드 문제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다소 완화되어 경제 회복에 긍정적

·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사드문제로 인한 한국의 경제 손실을 추정한 결과, 8.5조원으로 GDP 대비 0.52% 수준⁵⁾

· 또한 한국은행은 사드 보복 충격이 성장률을 0.4% 포인트 떨어트리는 효과를 줄 것으로 예측

-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 상존) 가계부채 구조 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 3고(高금리, 高원, 高유가), 건설투자 침체 등 국내 경기 회복세 제한요인들이 상존

· 가계부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대책과 병행하여 기준 금리 인상이 필요하나 기준금이 인상이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존재

· 3고(高금리, 高원, 高유가)는 편더멘탈과 건정성이 취약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존재

· 향후 건설 투자의 침체 국면 진입이 예상되는 바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5) 한재진 외,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7-10호 2017.5.2.

○ 수정 경제 전망의 내용

- 경제성장률 : 수출 경기 호조세 지속과 제한적 내수회복 등의 요인으로 2018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8%로 상향 조정
 -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p 높은 2.8%로 전망
 - 다만 2018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건설경기 부진, 제한적 소비 회복, 설비투자 기조 효과 등으로 2017년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
 - 2018년 성장률은 상반기 3.0%, 하반기 2.6%로 상고하저의 모습이 나타날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2.8	2.8	3.5	3.1	3.0	2.6	2.8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소비 : 증가세 개선 전망

- 가계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최저임금 인상, 고용여건 등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와 동계올림픽 개최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
- 또한 수출 확대가 내수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 복지제도 확충 등이 가계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민간소비의 개선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다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등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인한 자산효과의 축소 등이 민간소비 확대를 제한
-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6%, 하반기 2.4%, 연간 2.5%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2.5	2.1	2.4	2.3	2.6	2.4	2.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건설투자 : 증가세 둔화 전망

- 건축 기성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건축 수주는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8년 건축 경기는 점차 하강 국면에 진입할 전망
- 토목 부문 역시 평창 올림픽 등 기존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SOC 예산 감축 등에 따른 신규 사업 위축으로 부진할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10.7	9.4	4.7	6.8	1.6	0.4	1.0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 : 증가세 둔화 전망

- 세계 경기 개선 및 수출 회복세로 2018년에도 설비 투자 확대는 지속되겠지만, 기저 효과로 2017년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반도체 부문의 경우 '18년에도 대형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IT 중심의 설비 투자 증가세는 지속될 예정
- 단, 설비 증설이 IT 산업에 집중되고 제조업 전반으로의 확산이 제한적인 점은 설비 투자 증가세의 제약 요인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2.3	15.9	11.9	13.8	5.0	4.2	4.6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수출) 2018년 수출증가율은 6.2%를 기록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약화
 -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입 수요 확대, 국제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경제의 중간재 수요 확대, 사드 보복 조치 완화 등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
 - 다만 미국·유럽 등 선진국 통화긴축 기조, 원화 강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은 2018년 수출 증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증가 폭은 다소 축소

- (수입) 2018년 수입증가율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7.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본재 수요 증가, 민간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겠지만 2017년 수입 증가율이 크게 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상승 폭은 둔화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2017년 무역수지는 약 960억 달러 내외, 경상수지는 750억 달러 내외가 전망
 - 무역수지는 2018년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지만 수입 역시 동반 증가하여 2017년과 유사한 약 960억 달러 전망
 - 경상수지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세가 이어지며 여행수지 악화로 2017년보다 소폭 감소한 약 750억 달러 내외가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대외거래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987	363	417	780	380	370	750
무역수지(억 달러)	892	449	518	967	479	481	960
수출증가율(%)	△5.9	15.7	15.8	15.7	6.5	6.0	6.2
수입증가율(%)	△6.9	21.3	13.8	17.4	6.5	8.8	7.7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물가 : 상승폭 둔화 전망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및 상반기 동계올림픽 개최로 소비가 확대되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2016년 하반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기준금리 인상 및 원화 강세 기조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폭 제한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전망
-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0%, 하반기 1.8%, 연간 1.9%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2.0	2.0	2.0	2.0	1.8	1.9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 : 전년도 수준 예상

- 정부의 '일자리 추경' 집행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시장을 개선하며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2018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둔화됨에 따라 고용시장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
- 특히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 부문 취업자가 감소하여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2018년 실업률은 상반기 4.0%, 하반기 3.6%, 연간 3.8%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고용 지표 전망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3.7	4.1	3.5	3.8	4.0	3.6	3.8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7년 하반기,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17.12)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8	2.8	3.5	3.1	3.0	2.6	2.8
	민간소비 (%)	2.5	2.1	2.4	2.3	2.6	2.4	2.5
	건설투자 (%)	10.7	9.4	4.7	6.8	1.6	0.4	1.0
	설비투자 (%)	△2.3	15.9	11.9	13.8	5.0	4.2	4.6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987	363	417	780	380	370	750
	무역수지 (억 달러)	892	449	518	967	479	481	960
	수출증가율 (%)	△5.9	15.7	15.8	15.7	6.5	6.0	6.2
	수입증가율 (%)	△6.9	21.3	13.8	17.4	6.5	8.8	7.7
소비자물가상승률 (%)		1.0	2.0	2.0	2.0	2.0	1.8	1.9
실업률 (%)		3.7	4.1	3.5	3.8	4.0	3.6	3.8

4. 시사점

○ (시사점) 2018년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세계 경기 회복세 강화로 인한 수출 경기 호조는 이어갈 전망이나 건설경기 침체, 제한적 소비 회복 등으로 2%대 후반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전망

- 견고한 세계 경기 회복세, 사드문제 해빙기 등으로 수출 경기 회복세는 강화될 전망. 이로 인해 한국 경제 성장률 기존 전망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
- 한편, 내수 부문에서 향후 건설투자 침체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력의 위축이 불가피하며, 이를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에서 어느 정도 상쇄 또는 보완이 필요하나 가계 부채 등의 문제로 인한 소비 개선세가 제한될 전망
- 또한, 수출 증가세 유지로 인해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나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

○ (시사점)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경기 확장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추진 (2) 고용 및 소득 안정 및 소비 진작책 (3) 기업 투자활성화 (4) 부동산 안정화와 건설경기 연착륙 (5) 수출 경기 회복세 강화 (6) 서민 물가 안정 대책 (7) 장기적 고용 안정 달성 등이 필요함

첫째,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성장 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정확대와 긴축의 상반된 정책 기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단기적 시각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집착하기 보다는 내외수의 불균형, 잠재 성장률 둔화 등 경제 내 불안 요인 관리를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

-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더 붙어 잘사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상반되는 방향성이 가져 올 수 있는 구축효과, 유동성의 흐름 단절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둘째,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가계부채 구조조정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민간소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투자, 수출,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채널을 확대할 필요
 -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적 개선을 통해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소득 경로를 강화해야 함
 - 또한 기업의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탐색 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책 입안 시 가계의 소비 위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존재
 -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기준금리 인상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계의 소비를 빠르게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이 거시경제에서 경제성장률, 가계신용과 민간소비, 그리고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셋째,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안정장치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정책도 함께 모색할 필요
- 특히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 교역량 증가 등 대외 여건 개선이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마련을 통해 기업 투자 심리를 회복

넷째,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의 시기 조절 등을 통해 건설 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해야 한다.

- 건설투자가 현재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내수 부문의 회복세가 빠르지 못할 경우 2018년 예상되는 건설 경기의 하강은 현재 나타나는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다시 제약할 우려
- 건설투자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과 세심한 주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한편 2018년 하반기 건축경기 하강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SOC 발주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하여 건설경기의 변동성을 축소

다섯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 수출의 회복세를 이어가야 한다.

- 현재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술 산업을 적극 육성
 - 기초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능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고기술 중간재 생산을 확대
 -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 및 품질 경쟁력에 초점을 둔 중간재 상품 개발을 통해 수출이 증가해도 중간재 수입에 따르는 부가가치 유출을 방지

- 인도, 동유럽,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
 - 근본적으로 기존 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히트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
- 중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전략을 마련
 - 부품·소재 등 중간재에 대한 중국시장 수요가 향후 첨단기술형 고부가 제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 있으므로 중·고위 기술 부문의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 전략을 마련
 - 중국 기업에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은 점차 한계성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프리미엄 소비 시장을 발굴하고 대중 소비재 수출 품목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여 중국 수출의 무게중심을 소비재 시장으로 이동

여섯째,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발생 및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체감경기를 악화시켜 민간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물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통시스템 관리감독 및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물가관리를 강화해야 함
 - 원칙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담합이나 사재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함
 -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경우 정부의 조기 구매 계약을 확대하고 특정 생필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입물량을 증가시켜 수급안정을 확보
 - 또한 장마, 폭염 등 기후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수처리 시스템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

일곱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함
 -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
 - 고용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바탕으로 특정 부문에서의 일자리 급감을 완화하고,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함
 - SOC 투자의 시기 조절을 통해 건설부문 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성장률과 건설부문 취업자 수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 실업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 **HRI**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참여 연구진

【총괄】	주원	경제연구실장	(juwon@hri.co.kr, 02-2072-6235)
【연구조정】	홍준표	동향분석팀장	(jphong@hri.co.kr, 02-2072-6214)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대외여건】	김수형	연구원	(soohyung@hri.co.kr, 02-2072-6217)
【소비】	오준범	선임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투자】	백다미	선임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대외거래】	김천구	연구위원	(ck1009@hri.co.kr, 02-2072-6211)
【고용·물가】	신유란	연구원	(yooran0111@hri.co.kr, 02-2072-6240)